

■ KAA NEWS

1. 광고업협회, 이기흥 회장 선임

한국광고업협회는 2000년 3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제14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기흥 선언 사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광고업협회는 2명의 부회장에 이인호 LG애드 사장을 유임하고, 홍석규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전 협회장인 코래드 김명하 회장은 협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신임 이기흥 회장은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61년 한국일보에서 광고업무를 시작한 이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전무이사과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또한 IAA(국제광고협회) 한국 지부 회장과 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광고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정통 광고인이다. 이 회장은 광고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7에 국민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2. 제작사협회, 원석희 회장대행 체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는 지난 3월 9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씨엠스페이스의 원석희 대표를 회장대행으로 선출했다. 신임 원석희 회장대행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며, 럭키그룹 선전사업부 CM부장을 거쳐 1983년 서울문화를 설립했다. 한편 윤석태 전임회장은 경주대학교 석좌교수 및 경주광고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 자율심의기구, 좋은 광고 3편 선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00년 1/4분기 <좋은 광고>로 이건창호 기업광고와 삼성 기업광고, 보워터한라제지 기업광고 등 3편을 선정했다. 이견산업 '소녀의 기도'편은 창의 아름다운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까지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미지를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다.

보워터한라제지의 기업광고는 새로운 나뭇가지가 돌아나고 나비가 찾아드는 비주얼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잘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삼성의 기업광고는 희망의 상징인 장엄한 일출 장면과 "이제 새 천년은 당당한 초일류 디지털 강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자"는 카피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4. LG애드, 소비자분석보고서 출간

LG애드는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국인 -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이라는 제목의 소비자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N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이 보고서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

서는 1999~2000년에 걸친 CPR 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쇼핑생활, 광고관, 정보통신,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생활, 매체접촉 실태를 통한 소비자들의 의견, 관심, 행동의 총체인 라이프스타일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정보통신시대인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변화를 성찰해 보기 위한 2편의 특집을 포함하고 있다.

5. 오리콤, 빅 아이디어 카니발 개최

오리콤은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산학협동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2000 오리콤 빅 아이디어 카니발>을 개최한다.

올해 제정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카니발은 TV광고, 인쇄광고, 인터넷광고 등 모두 세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자사광고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23개 광고주를 응모 대상으로 선정, 광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였다.

오리콤은 카니발(사육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축제라는 의미보다 고기를 뜯어먹듯 가슴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경쟁의 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2000 오리콤 빅 아이디어 카니발은 전문대 이상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대상 1편에 상패와 장학금 3백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입상자는 입사전형 시 특전이 부여된다. 응모마감은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응모요강 및 지원양식은 홈페이지(www.oricom.com)를 통해 받을 수 있다.

6. 자율심의기구, 심의기준 발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최근 광고를 주제별, 부문별로 나누어 심의기준을 정리한 광고심의 기준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다. <광고심의기준>은 국내 광고관련 법령 규정과 지침, 그리고 FTC 가이드라인 등 선진외국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9개의 일반심의기준과 11개의 부문별 심의기준 등 모두 20개의 심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준별로 관련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광고규제는 각종 법규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문별 세부기준 또한 전체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광고심의기준>은 광고인들의 실무분야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기준 내용은 홈페이지(www.karb.or.kr)의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7. JWT, KTB와 광고합작사업 추진



제이월터톰슨(JWT)과 벤처캐피탈회사인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이 공동 투자해 벤처전문 광고사인 <톰슨디지털KTB>를 설립한다. 두 회사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15일 힐튼호텔에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투자조인식을 가졌다. 신설법인은 JWT측이 51%를 투자하여 경영권을 갖고, KTB 및 관계사가 4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새 회사는 김동욱 현 JWT코리아 사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톰슨디지털KTB는 앞으로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4대매체 광고는 물론 온라인 광고, 컨설팅, 리서치 등 토탈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KTB는 지난 81년 설립된 이래 메디슨, 다우기술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온 국내 최대의 벤처캐피탈업체다. 99년 말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20% 가량이 KTB의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했다. JWT월드와이드는 세계 최대의 광고그룹인 WPP그룹의 핵심기업이다. 지난해엔 전세계 88개국 255개의 오피스를 통해 120억 달러의 취급고를 올려 미국 내 1위, 전 세계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

8. 웰컴, 사옥이전 및 조직개편

웰컴이 지난 4월 1일 새로운 사옥이전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파트너제도, 인센티브제도 등 새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4년간의 설립 기간을 통해 완성된 웰컴 사옥 명칭은 <웰컴애드시티(WELCOMM Advertising City)>로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 건평은 1,100평 규모다. 빌딩 1층에는 광고인과 광고지망생들이 자유롭게 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9. 상암기획, 애드펠로우 39명 선발

상암기획은 최근 제4기 애드펠로우 39명을 선발했다.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대학 3~4학년생으로 구성된 펠로우들은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13주간 활동하며, 광고 아이디어 회의 및 광고관련 조사를 하게 된다. 상암기획은 이번 펠로우의 운영을 이메일과 홈페이지(www.sangam.co.kr)를 통한 과제부여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의식 진행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조기 발굴,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10. 제일기획, 24/7코리아와 투자조인

제일기획은 세계적인 미디어렐 회사인 24/7미디어의 한국법인인 24/7코리아와 투자조인식을 가졌다. 24/7 미디어는 전세계 25개국에 45개의 오피스를 두고, 세계 온라인 광고계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 미디어렐으로 미국시장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다. 24/7코리아는 24/7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각각 65%와 35%를 출자해 설립한 자본금 6억원 규모의 조인트 벤처회사. 현재 해외업체의 광고를 수주, 대행하고 있으며 국내 포털미디어인 한메

일넷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11. 인터넷광고 세계1위 더블클릭 국내 상륙

세계 인터넷 광고 1위 업체 더블클릭

(www.doubleclick.net)이 국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더블클릭은 아시아콘텐츠닷컴(www.asiacontents.com)사와 협력해 더블클릭코리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천리안 홈페이지, 프리챌, 씽크폴, 디즈니코리아 등 국내 11개 업체와 인터넷 광고서비스계약도 마무리 단계. 현재 더블클릭은 세계 21개국에 지사가 있고, 4,400여 광고주와 750여 사이트를 위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7년 4달러로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현재 주가는 100달러를 넘는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춘>이 뽑은 전자상거래 전문 20대 기업 중 14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5억 달러였다.